

戒 性 篇

景行録云、人性如水 水一傾則不可復 性一縱則不可反。制水者 必以堤防 制性者 必以禮法。

⇒ 《경행록》에 이르기를, 사람의 성품은 물과 같아서 물이 한 번 기울어 엎질러지면 다시 담을 수 없듯이 성품도 한 번 방종하면 바로 잡을 수 없다. 물을 다스리려면 반드시 둑을 쌓아야 하듯이 성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법을 지켜야 한다.

⇒ 《景行録》に伝わるのに人の性品は水のように水が一度傾いてまた盛ることができなように性品も一回、悪くなると直すことができない。水を治めようとするとき必ず堤防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ように性品を治めるためには必ず礼法を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

忍一時之責 免百日之憂。

⇒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할 수 있다.

⇒ ひとときの悔しさを堪えれば百日の懸念を免れることができる。

得忍且忍 得戒且戒。不忍不戒 小事成大。

⇒ 가능하면 참고 또 참고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참지도 않고 경계도 않으면 작은 일이 크게 될 것이다.

⇒ 出来れば耐えに耐えて警戒してまた警戒しなさい。堪えなくて警戒もなければ小さな事が大きくなるでしょう。

愚濁生嗔怒 皆因理不通。休添心上火 只作耳邊風。長短 家家有 炎涼 處處同。是非無相實 究竟摠成空。

⇒ 어리석고 변변치 못한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오로지 근본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에 불길을 더하지 말고 다만 귓전을 스치는 바람결인 듯 여겨라. 장점과 단점은 어느 집이나 있고 따뜻함과 싸늘함은 어느 곳이나 같다. 옳고 그름이란 실상(實相)이 없어 마침내는 모두가 다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마느니라.

⇒ 愚かで碌でない人が怒ることはひたすら根本的な理が分からないからだ。心に炎を加えずにただ耳もとをかすめる風のようにすること。長所と短所はどの家にもあつて暖かさと冷やかさはどこでも同じだ。正しさや悪さというのは実相がなくついでには全てが全部つまらないのになってしまう。

子張 欲行 辭於夫子 願賜一言 爲修身之美。子曰、百行之本 忍之爲上。子張、何爲忍之。子曰、天子忍之 國無害 諸侯忍之 成其大 官吏忍之 進其位 兄弟忍之 家富貴 夫妻忍之 終其世 朋友忍之 名不廢 自身 忍之 無禍害。

⇒ 자장이 떠나려고 공자에게 하직을 고하면서 말했다.

“바라건대 한 말씀 내려 주시면 몸을 닦는 아름다운 길로 삼겠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모든 행동의 근본은 참는 것이 으뜸이다.”

자장이 말했다.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자가 말했다.

“천자가 참으면 나라에 해가 없고, 제후가 참으면 큰 나라를 이루고, 관리(官吏)가 참으면 그 지위가 올라가고, 형제가 참으면 집안이 부귀하게 되고, 부부가 참으면 일생을 해로할 수 있고, 친구가 참으면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자신이 참으면 재해가 없을 것이다.”

⇒子張が去ろうと孔子に別れを告げながら言った。

“願わくは一言お話下ってくだされば身を清める美しい道にします。”

孔子が言った。

“すべての行動の根本は堪えることが最高だ。”

子張が言った。

“堪えればどうなりますか?”

孔子が言った。

“天子が堪えれば国に害がなくて、諸侯が堪えれば大きい国を成して、官吏が堪えればその地位が上がって、兄弟が堪えれば家が富貴するようになって、夫婦が堪えれば一生を仲良くすることができるし、友達が堪えれば名前を汚さないで、自分が堪えれば災害がないだろう。”

子張曰、不忍則如何。

子曰、天子不忍 國空虛

諸侯不忍 喪其軀、官吏不忍 刑法誅、兄弟不忍 各分居、夫妻不忍 令子孤、朋友不忍 情意疎、自身 不忍 患不除。

子張曰、善哉善哉。難忍難忍

非人不忍 不忍非人。

⇒자장(子張)이 말했다.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자가 말했다.

“천자가 참지 않으면 나라가 텅 비게 되고, 제후가 참지 않으면 그 몸을 잃게 되고, 관리(官吏)가 참지 않으면 형벌에 죽게 되고, 형제가 참지 않으면 각각 헤어져 살게 되고 부부가 참지 않으면 자식들을 의롭게 만들고 친구끼리 참지 않으면 정과 뜻이 서로 갈라지게 되고, 자신이 참지 않으면 근심이 없어지지 않는다.”

자장이 말했다.

“참으로 참으로 훌륭한 말씀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아니면 참지 못할 것이요 참지 않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子張が言った。

“堪えなければどうなりますか?”

孔子が言った。

“天子が堪えなければ国が空くようになって、諸侯が堪えなければその身を失うようになって、官吏が堪えなければ刑罰に死ぬようになって、兄弟が堪えなければそれぞれ別れて

暮らすようになって、夫婦が堪えなければ子たちを寂しくさせるぢ、友達どうし堪えなければ情けと志がお互いに割れるようになって、自分が堪えなければ心配ことが消えない。”子張が言った。

“真に真に立派なお話です。堪えるというのはまことに難しい事です。人ではなければ堪えることができないし、堪えなければ人ではないです。”

景行録云、屈己者 能處重、好勝者 必遇敵。

⇒《경행록》에 이르기를, 자기 자신을 굽힐 줄 아는 사람은 능히 중요한 지위에 있을 수 있고,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적을 만나게 될 것이다.

⇒《景行録》に伝わるのに自分自身を曲げることを分かる人は充分に重要な地位にありつけることが出来るし、勝つのを好む人は必ず敵に会うでしょう。

惡人罵善人 善人 摠不對。

不對 心清閑 罵者 口熱沸。

正如人唾天 還從己身墜。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을 꾸짖으면 착한 사람은 전혀 대꾸하지 말라. 대꾸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맑고 한가하지만 꾸짖는 사람은 입이 뜨겁게 끓을 것이다. 이는 마치 사람이 하늘에 침을 뱉는 것과 같아서 그 침은 다시 자기 몸에 떨어지게 된다.

⇒悪い人が善良な人を叱れば善良な人は全然言い返さないこと。言い返さない人は心が清くて暇だが叱る人は口が熱くなるでしょう。これはまるで人が空に唾を吐くことのようにその唾がまた自分の身に落ちるようになる。

我若被人罵 佯聾不分說。

譬如火燒空 不救自然滅。

我心 等虛空 摠爾翻唇舌。

⇒내가 만약 다른 사람으로 부터 욕을 먹더라도 귀 먹은 척하고 웃고 그름을 따져 말하지 말라. 비유컨대 이는 불이 허공에서 타다가 끄지 않아도 저절로 꺼지는 것과 같다. 내 마음은 이 허공과 같은데 너희 입과 혀만 나불댈 뿐이다.

⇒私が若し、他人から悪口を言われてもつんぼになった振りをして良い悪いことを言わないこと。比喩すると火が空で燃え尽きて消さなくても自然に消えるのと同様だ。私の心はこの空のようなのに君たちの口と舌だけ動かすのみだ。

凡事 留人情 後來 好相見。

⇒모든 일에 인정을 남겨두면 훗날 좋은 님으로 만나게 된다.

⇒すべての事に情けを残しておけば後日良い顔で会えることが出来る。